

### 공동체 소식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하느님,  
복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하느님 백성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영신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신자의 마음을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안내: 예수 성심 성월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성체성사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습니다.
- 기도: 6월 중에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파견예식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3쪽 참고)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6/23(토) 11:30.

#### 오마하 ME주말 교육 안내

- 일시: 9월 15-16일, 1박2일(토,일)
- 장소: 오마하 성당, 참가신청은 별도의 문의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62	221	153	200
차 주	34	210	174	19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지안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행사 1조
차 주	김명희, 박계숙, 박동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6/17	35 명	213 달러	650 달러
차호섭, 김정원 (총 2세대)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http://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mailto: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mailto: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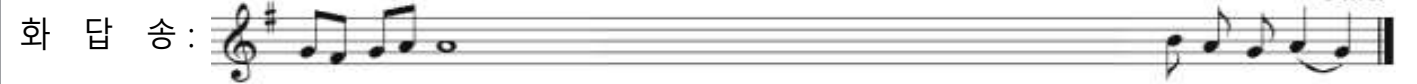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빛어 만드신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며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립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 그림 묵상

세례자 요한처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는 일, 영적인 눈을 뜨는 일,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살레시오회 수도원 수련원장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1-6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피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앓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뺨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22-26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7-66.80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 생명의 말씀 주님의 길을 미리 닦은 세례자 요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휴게소 근처에는 한 위령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순직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위령비입니다. 1970년 7월 7일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한국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사의 큰 역할을 한 고속도로이지만, 1960년대 당시 열악한 장비와 상황으로 인해 건설 중 77명이나 사망했을 정도로 당시 고속도로의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분들과 같이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길을 미리 닦아준 분들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닦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축일을 지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띠고 오셨습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태어나 어른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유약한 모습으로 처음 세상에 드러날 때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것저것 가려서 많은 숙고를 한 후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한 그 자식은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 있는 동안 필생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명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을 두고 이름을 짓기 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이웃과 친척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

야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부모님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각자 다른 소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이웃이나 친척들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능력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능력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자비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알리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소명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작은 화분에  
내가 심은 씨앗도  
하루에 몇 번씩  
틈나면 몇 번씩  
바라보고 궁금해하는데  
그분이 심으신 사람은  
오죽  
궁금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울까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루카 1,66)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창세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 그들을 심판하러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인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곳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주님께서 단 한 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 있다면, 또다시 마흔 명, 그다음은 서른 명, 스무 명을 물었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물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느님께서 “그 단 한 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고, 꾸짖으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늦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분이십니다. 한때 저는 주님을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지시는

주님은, 엄격한 심판자이기보다 희생과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용서를 허락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죄의 심판에 앞서 많은 기회를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나의 죄를 되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놓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고해성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난 판공성사가 마지막 고해성사가 됐네요. 사실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거짓말을 하기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좀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과 고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미사 중에 십자가의 예수님 얼굴을 올려다보니 예수님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서 가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라’라고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고해성사와 묵상으로 저를 비워내야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꼬옥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최희 마리아 | 아나운서

## 교리상식

**미사 지향은 미사예물을 내야만 효과가 있나요?**

미사예물의 사전적 의미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바치는 예물을 뜻합니다.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사제에게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고, 사제는 그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예물이 없을지라도 특정 지향으로 미사 바치기를 원하는 신자가 있다면, 특히 가난한 이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할 것을 사제들에게 간곡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사전, 교회법 제945조 2항) 적은 액수라도 미사예물을 봉헌한다면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